금주의 칼럼

후회없는 인생

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(Tony Campolo) 박사님이 95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.
"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?"

● 첫 번째로 많은 대답은 '날마다 반성하는 삶'이었습니다.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반성하지 않은 시간이 가장 큰 후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.

●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'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삶'이었습니다. 분위기에 눌려 불의와 타협하고,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,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,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온 날들이 두 번째로 큰 후회였습니다.

●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은 '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기는 삶'이었습니다. 삶이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며 사는 동안 세운 업적만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을 95세의 어르신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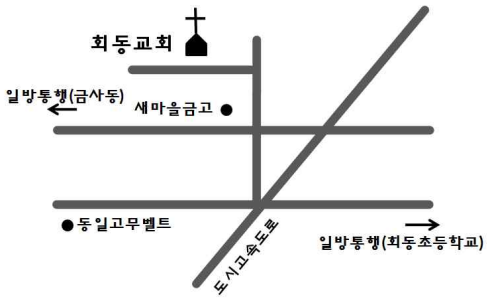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산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.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,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

- 타지키스탄 (최**-서** 선교부)
- 국제기아대책(동래지역-선교부)
- 캄보디아 (최** 샬롬회)
- 교경협의회(금정경찰서,선교부)
- 총신대학교 (박성규. 선교부)
- 네팔선교(차**-2남전도회)
- 부루키나파소(김** 3여전도회)
- 한국대학생 선교회(박*지-4여전도)
- 인도네시아(배** 2여전도회)
- 인도네시아(조** 1남전도회)
- 동부산노회: 미자립교회 지원 (선교부,본회계)
- 삼척소명교회(고진용, 권사회)
- 부산신학교(교단신학교,기도후원)
-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(금정지역)

교회 집회 안내

예 배	시 간	집 회	시 간
주 일 예 배	오전 11:00	삼 일 기 도 회	오후 7:30
주일찬양예배	오후 2:00	유 * 초 등 부	주일 9:00
삼 일 예 배	오후 7:30	중 고 등 부	주일 9:00
새 벽 기 도 회	매일 5:30	청 년 부	주일 12:45



대한예수교장로회
회동교회

2026. 6 . 14 / 제 48-24
2026 비전 :
" 내가 기도하노라 " (빌1:9)
since 1979.

주일예배

오전 11: 00 / 인도 : 배영조 목사

입 례	입례송 / 기원
○ 표어제창	" 내가 기도하노라 " (빌 1:9)
○ 찬 송	1장
○ 교 독 문	19문 (시편 32편)
○ 신앙고백	사도신경
찬 송	310장
기 도	강병옥 장로
성경교독	요한복음 3: 16-17
찬 양	할렐루야 찬양대
말 씀	하나님의 사랑
찬송*봉헌	304장 / 봉헌
봉헌기도	인도자
광고*교제	교회소식 / 성도의 교제
○ 찬 송	620장 (1절)
○ 축 도	인도자

○ 표시는 일어섭니다

찬양예배 오후2시

인도: 배영조목사

경배와 찬양 [1:45— 2:10]

입 례: 작은십자가 찬양
찬 송: /
기 도: 김은성 집사 (다음: 오세영 집사)
성 경: 시편 66: 1-7
특 송: (다음: 10구역)
말 씀: 경배와 찬양을 받으심
기 도: 합심기도(2)
광 고: 인도자
축 도: 인도자

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:30

말씀 : 신명기 강해 / 인도: 배영조 목사

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

말씀: 누가복음 강해 / 인도: 배영조목사
[토 ~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] 1층 교육관

■ **본회계** 부산은행 073-01-033878-7 회동교회
■ **선교** 부산은행 112-2335-8311-00 최은경
■ **건축** 새마을금고 9002-1699-9318-3 회동교회

- 담임목사 : 배 영 조
- 장 로 : 오정수 강병옥 최진수
- 선교사 : 최강주*서현아
- 전도사 : 허춘성 박옥주
- 지 휘 : 김태호
- 반 주 : 김정숙

6 월 봉사 안내

		1주(7일)	2주(14일	3주(21일)	4주(28일)	
차 량		(오전) 김수안 오세영 / (오후) 박영수(온천) 김수안(재송)				
안내 / 식당		강형순 / (주방) 이순점 이은심 / (청소) 강형순				
중 식 봉 사		1,2구역	3,4구역	5,6 구역	7,8구역	
기도	주일예배	오정수	강병옥	최진수	오정수	
	주일오후	김종섭	김은성	오세영	이성희	
	삼 일 밤	합심기도				

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(회동동) Tel. 522-8771, 522-3708(목사관) Fax. 525-7191
홈페이지: http://hoedongch.org/index.html [네이버에서 "회동교회"]

교회 소식

● **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**
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***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**

*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.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합시다.
1 경배와찬양: 오늘 오후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드립니다.
2 구역모임: 6월 구역모임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.
3 생명의 양식란: 가정사역에 대한 내용이 연재되고 있습니다. 숙독바람
4 임직자교육: 6월 임직자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.
시간: 점심후 1: 05분 장소: 3층 교육관
5 특송: 오후예배 특송 순서, 구역순서가 지나면
1남전도회, 2남전도회 샬롬회(남) /
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샬롬회(여) / 자원자/ 순으로 진행
6 행사 안내: 1) 교사강습회: 6월 22일부터 장소: 온천제일교회당
2) 월례회: 셋째주
3) 권사기도회: 6월 권사기도회, 23일(화) 오전 10시 30분
4) 맥추감사: 7월 첫째주

전도팀: 전도팀 전도는 한 달에 두 번 나갑니다. 1교구, 2교구

기도제목
1 6월: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안보를 위해
2 여름행사- 어린이 성경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
3 교우들: 질병, 입원중인 교우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위해

6월 행사 안내

* 지방선거일: 6월 3일	* 교사강습회: 6월22일부터 온천제일교회당
* 야외행사: 6월 3일 황산공원	* 맥추감사주일: 7월 첫째주일
* 현충일: 6월 6일	* 전도팀 전도: 첫째주, 셋째주 전도
* 제직회: 6월 7일 주일	1교구/ 2교구
* 경배와 찬양: 둘째주일	* 호국 보훈의달: 6월
* 월례회: 셋째주일	* 권사기도회: 매달 넷째 주 화요일
* 구역모임: 6월 구역 모임	* 새가족부 : 세미나실, 점심 후 성경공부

향기로운 예물

◈**십일조:** 김미경*조현훈 김은성*최승희 김종섭*장은미 김충공*신금희 김태호 이영희 최춘은

◈**감 사:** 김종섭*장은미 김충공*신금희 이영희 무명

◈**선 교:** 김종섭*장은미 김난새*이현정 김은수*김은숙 이성희*강승경 김충공*신금희 이영희

◈**건 축:** 김종섭*장은미 이성희*강승경 김충공*신금희 이영희 김은수*김은숙

양육,친교 모임

프로그램	모임시간	모임장소
새가족부	주일 오전 12:40	1층 세미나실
구역장모임	주일 (매달 마지막주)	3층 교육관
돌봄교실	주일 오후예배시간	교육관/ 별관
기초교리반	상 . 하반기(문답교육)	1층 세미나실
성경강해	마태, 시편, 신명기	본당
친교(탁구부)	주일/ 오후예배후	별관

구역 모임 보고

6월 모임

구역	구역장	모인수	전도	헌금	성경	모인곳
1교구						
1	이순점				1892	
2	강형순	3		15000	5010	교 회
3	이은심				4400	
4	백운자				7135	
5	김경애				3450	
2교구						
6	이봉순				1449	
7	박광자	5			2570	김중렬
8	이현정	6			7847	야 외
9	전만주				4164	
10	김종섭				960	

생명의 양식

06-2 잔소리와 관심의 차이(3) 막 3장 13-15절

관심이란 무엇일까?

셋째,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무슨 문제에서든지 자녀들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.
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
자녀들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.
이런 관심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합니다.
1) 순수한 사랑을 배움
2)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움
3) 따뜻한 피난처를 얻음
4) 기본적인 신뢰를 배움
자녀들은 부모들의 관심을 진정 원하면서도
정 반대의 신호를 보냅니다. 마치 관심이 싫은 것처럼 말입니다.
그것은 진지한 관심을 달라는 것입니다.
진정 자신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.
시험에 들고, 거부하는 것은 관심을 더 달라는 몸부림입니다.
그리고 가까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장벽을 강하게 밀면 안됩니다.
부드럽게 장벽을 밀어내도록 해야 합니다.
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.
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지지하십시오.
그러면 정말 자녀들은 가까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.

넷째, 정직한 것입니다.
관심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정직은 관심의 기본입니다.
특히 자신의 약점에 정직하십시오.
진정한 관심의 첫걸음은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
자녀들에게 약점을 인정해 보십시오.
그 순간부터 자녀들은 어느새 부모의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.
결론을 내려볼까요?
우리는 부모로서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
진정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
"너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이다"라는 사실을 지혜롭게 전달하십시오